

재북(在北) 작가 송창일 연구

—해방 후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젼마*

국문초록

송창일은 1929년부터 1959년까지 동요, 동화, 소년소설, 평론 등 약 13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30년간 아동문학가로 활동한 작가다. 그의 작품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각종 아동문학 선·전집에 수록되는 등 한국 아동문학사를 관통하며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그는 일제 말 친일문학에서 해방 후 북한체제에 호응하는 혁명문학에 이르기까지 모순된 방식으로 비연속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러 면에서 송창일은 한국 아동문학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해방 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문분과인 아동문학위원으로 활동하며 문단의 외연을 넓혀갔다. 또한 1954~1956년까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문단을 주도하기도 했다. 해방 후 그의 작품 활동은 크게 '평화적 건설 시기'(1945-1950)와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1953-1967)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화적 건설시기에는 토지개혁과 각종 법령의 정비에 따른 인민들의 생활 개편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고, 전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는 조국과 수령 예찬, 새 제도와 민주개혁에 대한 인식을 개조하려는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 주제어: 송창일, 재북 작가, 『아동문학』, 북한 아동문학, 평화적 건설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목 차

1. 송창일은 누구인가	1) 평화적 건설 시기(1945-1950)
2.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	2)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1953-1967)
1) 문단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2) 『아동문학』과 송창일	4. 결론
3. 북한에서의 작품 양상	

1. 송창일은 누구인가

송창일(宋昌一)은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낯선 작가다. 그는 일제시대에 창작동화집을 펴낸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1938년 『참새학교』를 발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화집 『참새학교』의 실물은 손에 닿지 않으며 그의 정확한 생몰연대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송창일이 ‘생몰연대 미상’으로 남아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평양 출신의 재북 작가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해방 후 문단의 재편으로 다수의 월남·재북 작가들이 문학사에서 실종된 것은 남북분단이 초래한 비극의 소산이며 한국아동문학사 역시 일제시대와 분단시대를 통과하는 분기점에서 수많은 작가들을 잃었다. 문학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남북한의 냉전이 테올로기 속에 갇혀 장막에 가려져 있다. 특히 재북 아동문인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불충분함을 고려하면 실종된 작가들을 문학사 안에 재배치하는 작업은 남북 아동문학사의 공백을 메우는 복원의 의미를 지닌다. 송창일 역시 일제시대와 분단시대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작가지만 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송창일은 1929~1959년까지 동요, 동화, 소년소설, 평론 등 약 13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아동문학가뿐 아니라 교사

로도 활동한 그는 창작물 외에도 강좌, 지도법, 단평, 선편 등의 교육지도 이론에도 힘을 기울였다. 단행본으로 동화집 『참새학교』(평양애린원, 1938), 『소국민훈화집』(아이생활사, 1943) 등을 발행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각종 아동 문학 선·전집에도 실려 있다. 시기별로 나열하면 『조선아동문학집』(1938, 조선일보사), 『겨레아동문학선집』(보리, 1999), 『근대 유년동화 선집』(창비, 2014) 등에 실려 있고, 한편 북한에서는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문학예술출판사, 2005),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 후 편)』(문학예술출판사, 2012) 등에 작품이 실려 있다.¹ 일제시대부터 현재를 망라하며 명망 있는 앤솔러지에 그의 작품들이 실린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송창일은 한국 아동문학사를 관통하며 일정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송창일의 작품들은 최근 그림책으로도 발간되어 오늘날 아동들에게도 읽힐만한 유년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²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전까지 그는 문단의 중심보다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송창일은 당시 중앙 문단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평양에서 작품 활동 및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문단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0년대 등장하여 문단을 형성한 ‘소년문예가’ 출신이 아닌 1930년대 등장한 보다 근대적 의미의 전문작가 군(群)에 속하는 송창일은 소년문예단체나 특정

-
- 1 송창일, 「거짓말(동화)」, 『조선아동문학집』, 조선일보사, 1938.
 송창일, 「거짓말(동화)」, 「눈사람(동화)」, 「베개얘기(동화)」, 『겨레아동문학선집6』, 보리, 1999.
 송창일, 「빚방울(동요)」, 『겨레아동문학선집10』, 보리, 1999.
 송창일, 「고양이」, 「베개얘기」, 『근대 유년동화선집3』, 창비, 2014.
 송창일, 「고양이(동화)」,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 문학예술출판사, 2005.
 송창일, 「새마을(동화)」, 「빛나는 휘장(동요)」,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 후 편)』, 문학예술출판사, 2012.
- 2 송창일, 『베개 얘기』, 개암나무, 2014.
 송창일, 『눈사람』, 키즈엠, 2014.
 송창일, 『눈사람』, 파랑새, 2014.

동인에 소속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방 후 문단이 재편되면서 그의 위치와 활동 양상이 달라진다.

해방 직후 북한의 문단은 1946년 3월 25일 평양에서 북조선예술총연맹의 결성으로 시작된다. 북조선예술총연맹은 1946년 10월 13일 제2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 카프계열 아동문학 작가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일제시기 비(非) 카프계열³이었던 송창일이 해방 후 좌익 단체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문분과인 아동문학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문단 중심으로 진입한 것은 다소 흥미롭다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1954~1956년까지 조선작가동맹 기관지인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문단의 외연을 넓혀갔다. 뿐만 아니라 해방 전 광성 소학교 교사이던 송창일은 해방 후 평양 제8 인민학교 교장과 종로인민학교 교장을 부임하며 권력을 더욱 공고화한다. 이는 북한 문단의 인적 청산과 사상 검증이 허술하다는 반증인 동시에 한국아동문학사의 불모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본고는 남북한 아동문학사의 이질적 전개라는 역사적 시야 속에서 송창일은 북한문학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문제적 작가임을 주목하고 그가 분단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통과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송창일에 관한 연구로는 최근 발표된 석사논문이 유일하다.⁴ 이 논문은 송창일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에 대한 일차적인 정리를 시도

3 송창일은 일제시기 계급주의 진영과 거리가 있었다. 그의 각종 종교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기독교 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친사회주의적이었던 계급주의와 상대적으로 현실 타협주의적이었던 기독교와의 상관관계, 그의 유년지향적인 작품 경향 등을 고려하면 송창일은 비 카프계열에 닿아 있다. 또한 그는 기독교 후원 잡지인 『카톨릭 소년』, 『아이생활』의 주요 필자로 활동하며 일제 말에는 『아이생활』의 친일 방침에 동참하여 친일 행위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철편, 「송창일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7, 참조.

4 김철편, 「송창일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7. 송창일의 생애 및 해방 이전 활동 등은 이 논문을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방 후 그의 활동과 작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고에서 이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송창일이 해방 후 발표한 작품은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아동문학』에 수록된 것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다. 해방 후 북한아동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아동문학』의 창간⁵임을 고려하면 여기 수록된 작품에 대한 고찰은 약 2년간 『아동문학』의 편집위원 겸 작가로 활동한 송창일의 문학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생각한다.

2.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

1) 문단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해방 후 북한의 문단은 1946년 3월 25일에 결성된 북조선예술총연맹(이하 '북예총') 결성으로 시작된다. 북예총은 북조선공산당 산하의 문화 단체로서 각종 정치 사업의 문화적, 대중적 선전이라는 목적성을 강하게 띤 단체였다.⁶ 북예총은 1946년 10월 13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북문예총')으로 명칭이 바뀌며 재편된다. 북문예총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의 수립', '일제적, 봉건적, 민족반역적, 파쇼적,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예술의 세력과 그 관념의 소탕' 등의 강령을 내걸며 출발한다. 북문예총은 송영(宋影), 박세영(朴世永), 이동규(李東珪), 이원우(李園友), 신고

5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72면.

6 박민규, 「해방기 북한의 문예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346면.

송(申鼓頌), 홍구(洪九), 엄흥섭(嚴興燮) 등 일제시대 『신소년』, 『별나라』에서 주로 활약한 작가들이 조직의 각 동맹 상임위원을 맡아 조직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송창일은 이듬해인 1947년 북문예총 전문분과 아동문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문분과 위원 명단〉

아동문학위원 : 송창일(宋昌一), 박세영(朴世永), 송영(宋影), 신고송(申鼓頌), 강훈(姜勳), 이동규(李東珪), 정청산(鄭靑山), 강승한(康承翰), 강소천(姜小泉), 노양근(盧良根), 윤동향(尹童向), 이호남(李豪男)⁷ (밑줄 강조-인용자)

구(舊) 카프계열의 문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북문예총에서 해방 이전 비카프 계열이었던 송창일, 강승한, 강소천, 노양근 등이 해방 후 북문예총 전문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계급문학 진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특히 일제 말 송창일의 친일 행적을 고려하면 해방 후 일제 잔재의 청산이 혁명적 구호로 자리 잡게 된 북한 문단에서 송창일이 문단 중심부로 진입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앞서 언급했듯 해방 이전부터 평양에서 활동하던 송창일은 당시 중앙문단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의 지역적 거리와 독자적인 활동 등으로 문단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 재북 작가인 그에게 중앙문단은 곧 평양으로 대체되었고 작가 및 교사로 꾸준히 활동한 이력을 통해 중앙문단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맨 앞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분과 위원장일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7 원종찬, 위의 책, 34면, 재인용.

북문예총의 결성(1946.3)과 전문분과 위원 명단의 발표(1947.12) 사이에는 ‘아동문화사 사건’(1946.11~12)이 자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르주아 경향에 대한 숙청작업이 일단락되고 나서 북문예총의 전문분과 위원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아동문화사 사건’은 평양 아동문화사에서 발행되는 『어린 동무』와 『어린이신문』 및 단행본들의 계급적 성격을 문제 삼아 내부 ‘불순분자’를 제거하고 출판사 명칭을 바꾼 사건을 가리킨다.⁸ 송창일은 당시 『어린동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해방 이전의 친일 행위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직후 평양에서 『어린 동무』라는 잡지가 발행은 되었으나 그 작품들이 거의 순수예술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동문학 작품에서 사상성을 높일 문제는 아주 긴급한 것으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야만 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가 건설되었는데 그 전날 보던 눈으로 새 세상을 봐야 하는가.

그와 같은 낡은 생각으로는 새 세대의 아동들을 교양할 수도 없을뿐더러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논문에서 비판되었었다. 그리하여 아동문학 평론들은 일부 아동문학 작가들의 사상 개변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길로 용감히 나가야 한다고 깨우치는 종소리를 울렸었다.⁹

특히 당은 항상 아동 작가들에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 일관한 사상 예술적으로 특출한 작품들을 창작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와 대립되는 일체 반사실주의적 경향

⁸ 원종찬, 위의 책, 67면.

⁹ 박세영, 『『아동문학』 창간 당시의 회상』, 『아동문학』, 1957.7, 72~73면.

이하 원문 인용은 모두 원문 그대로 인용함.

과의 원칙적 투쟁으로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아동 작가들은 해방 직후 『아동문화사』에 일부 잠입하였던 『순수』 문학 신봉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리저리하게 발현된 형식주의적 경향과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성과 있게 숙청하였다.¹⁰

이 사상투쟁의 결과로 ‘아동문화사’는 ‘청년생활사’로 이름을 바꾸고 계급적 성격을 강화해서 새로 『소년단』을 펴낸다. 그리고 ‘아동문화사’에서 창간된 『아동문학』은 2호부터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직속의 ‘문화전선사’에서 발행된다.¹¹ 이 같은 사상투쟁의 한복판에서 송창일은 무사히 넘어간 반면, 비록 6·25전쟁 직후의 사후적 판단일는지 모르지만 박남수(朴南秀)·양명문(楊明文)·장수(張樹-장수철) 등은 반동적 아동문학 작가로 거론되고 있다.

해방 직후 우리 작가들 가운데는 아직 적지 않은 경우에 선진적인 창작방법을 확고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때가 없지 않았고 해방 후 급변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데 원만치 못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순수 문학 이론을 들고 나오는 비록 소수이나마 돌각담도 있었고 반동적 부르조아 문학의 악영향을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박남수, 양명문, 장수**의 잡초 무더기도 있었다. 우리 아동문학은 이 모든 유해한 경향들을 제거하며 사상성을 고수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투쟁 행정에서 성장하였다.¹² (밑줄 강조-인용자)

10 장형준, 「해방 후 아동문학의 찬연한 발전 노정」, 『해방 후 우리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74면.

11 원종찬, 「강소천 소고 : 해방기 북한체제에서 발표된 동화와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 10~11면.

12 김명수, 「해방 후 아동문학의 발전」,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393~394면.

해방 후 1년간의 아동문학의 급진적 발전은 이상에 기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린 동무』 지상을 통하여 가장 많이 협력한 작가로는 동요에 있어서 박세영, 강승한, 박석정, 신고송, 이정구, 고의순, 윤동향, 배풍, 안성진 외 수씨(數氏)였고, 소년시로서에 양명문 씨가 꾸준히 작품을 보여 주었고, 동화나 소년소설로는 한덕선, 리진화, 강소천, 김화청, 차영덕, 김신복, 리호남, 리동규, 신영길, 강훈, 송창일 씨 외 수씨이며, 외국동화 번역작가로는 소련 편으로 김경신, 리옥남 양씨(兩氏), 불란서 편으로 리휘창 씨, 영국 편으로 박화순, 김조규 양씨를 들 수 있다.¹³ (밑줄 강조-인용자)

6·25전쟁 이전에 나온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송창일과 양명문은 『어린동무』에서 각각 소년소설과 소년시 부분에서 활발하게 집필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남수, 양명문, 장수철 등이 ‘아동문화사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구체적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북한 아동문단의 사상적 정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남수, 양명문, 장수철과 함께 강소천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 역시 의문점이다. 강소천과 장수철은 해방 후 월남하여 반공 아동문학에 앞장선 이들인 만큼 이들의 엇갈린 행보 또한 문단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월남한 강소천, 장수철과 북한에 남은 송창일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단 주류에 흡수되며 권력에 봉사한 셈이다. 송창일은 박남수, 양명문, 장수철, 강소천이 월남하기 전까지 함께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 1949년 1월 ‘신간 『아동문학』 조쏘친선 특집호’ 광고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요: 박세영, 강소천, 장수, 유연옥, 김학연, 박경중, 이성흥, 김우철, 이정구

13 송창일, 「북조선의 아동문학」, 『아동문학』, 1947.7, 23면.

동시: **박남수**, 남응손, 윤동향, **양명문**, 강승한

동화: 강훈, 이원우, 박태영, 이호남, **송창일**

동극: 김순석¹⁴ (밑줄 강조-인용자)

한편 장수철은 1990년대에 송창일과의 일화를 회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아동문학가 송창일 씨가 이끄는대로 그의 관사로 따라 갔다. 그는 종로인민학교(초등학교)교장으로 재임중이었다.

(……)

술잔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들의 음성은 모르는 사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문득 송창일 씨는 흥분을 참지 못했던지,

“그래 아동문학마저 공산당의 지시대로 써야 하나? 나쁜 놈들! 정말 교장노릇도 못해먹겠다니까.”

하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닌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내가 놀랄 정도였다. 우리들이 약간 언성을 높여 문학활동에 대한 비판론을 펼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토록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를 줄은 몰랐다.

“송선생, 그렇게 고성을 질러도 괜찮겠습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지.”

송창일 씨는 끝내 월남하지 못했다. 아마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월남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숙청당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¹⁵

14 원종찬, 위의 책, 78면, 재인용.

15 장수철, 『격변기의 문화수집』, 현대문화, 1991, 54~55면.

정확한 연도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959년 이후 송창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상기하면 당시의 일화는 장수철이 대략 1951년 월남한 것과 송창일이 교장을 맡고 있었던 때를 고려해 1947~1950년 사이가 아닐까 싶다. 송창일이 “숙청당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장수철의 회고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당시 송창일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참조점이 되는 글이다. 사상투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송창일이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동문학마저 공산당의 지시대로 써야”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해방 이전 자신의 친일 행위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당에 충실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송창일은 1950년대로 들어서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간다. 전후의 아동문학은 당이 소집한 아동문학 관계자회의와 전국작가예술가대회를 계기로 한층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3년 7월 12일 아동문학 관계자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는 아동문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한 중요한 자리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조선작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이렇게 각 부문별로 재조직되었다. 제1회 조선작가동맹 회의에서 선출된 조직임원을 살펴보면 송창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복원

위원: 송창일, 강효순, 이진화, 신영길, 리원우, 윤복진, 박세영, 이효남¹⁶ (밑줄)

16 원종찬, 위의 책, 18면.

강조-인용자)

또한 1956년 10월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이뤄진 「동맹 각급 기관들의 선거와 각부 성원들의 임명」을 살펴보면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 지부 지부장에 송창일의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작가동맹 각도 지부(반)장

- 1)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 지부 지부장: 엄홍섭
- 2)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 지부 지부장: 정서촌
- 3)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 지부 지부장: 유기홍
- 4)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 지부 지부장: 송창일**
- 5) 조선작가동맹 개성시 지부 지부장: 이상현
- 6) 조선작가동맹 강원도 지부 지부장: 이춘진
- 7)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 지부 지부장: 변희근
- 8)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 지부 지부장: 정문향
- 9) 조선작가동맹 양강도 작가반 반장: 동승태
- 10) 조선작가동맹 자강도 작가반 반장: 김영석¹⁷ (밑줄 강조-인용자)

전국작가예술가대회 이후 아동문학 분과는 전문위원들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47년 7월 계간으로 발행된 북조선문학동맹 아동문학전문분과의 기관지인 『아동문학』이 1954년부터는 편집위원체제를 갖추고 월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송창

17 원종찬, 위의 책, 205면, 재인용.

일은 1956년 1월호까지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의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체 역시 『아동문학』이므로 『아동문학』에 송창일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문학』과 송창일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문학』의 창간(1947.7)은 해방 후 아동문학의 전개에서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이 된다. ‘응향 사건’ 이후 광범하게 전개된 사상투쟁에 부응한 산물이며 특히 창간호는 아동문학 건설을 위한 ‘연구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아동문학』 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은 표어가 등장한다.

1. 조선인민이 갈망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련 대표단에게 전인민적 감사를 드린다!

1. 북조선 민주개혁만이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조선 민주개혁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총역량을 집중하자!

1. 조선인민의 행복의 상징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만세!

1. 조선인민의 선두에 서서 조선의 민주발전을 명시하며 조선민족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조선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인민공화국 수립과 김일성을 예찬하는 정치적 색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동문학』의 중심 노선인 듯하다. 특히 창간호는 평론 위주로 편집되어 아동문학 관계자를 위한 전문이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동문학』은 창간호부터 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문화전선사로 넘어오면서 아동들의 교양 잡지로 편집 방향이 바뀌었다.¹⁸ 박세영은 『아동문학』 창간 당시 송창일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드디어 나는 북반부에 와서 그림던 많은 동무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김복원, 김우철 동무는 이미 해방 전에 만난 일이 있었고 안룡만, 리원우, 남구만, **송창일**, 리호남, 남운손 등 『별나라』를 통하여 이미 친숙했던 동무들을 비로소 처음 만났다.

(……)

이와 같은 형편에 강훈, **송창일**, 리진화 등 아동문학 작가들은 『아동문학』을 발행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⁹ (밑줄 강조-인용자)

『별나라』, 『신소년』의 계급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동문학』에 송창일이 초창기부터 관여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그는 해방 이전 『별나라』에 입선동요 「조선의 아가」(1930.5)를 유일하게 수록한 뒤 이후에는 줄곧 『아이생활』, 『소년』 등의 잡지에서 유년문학을 주로 발표하였다. 해방 이전 『별나라』, 『신소년』의 계급주의 노선과 다소 동떨어져 있었던 송창일이 해방 후 『아동문학』에서 당의 정책에 입각해 혁명문학에 가담하는 모습은 북한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그의 방편으로 보인다.

해방 후 북한에서 아동문학 작가들은 부단한 당적 지도를 받아왔고 이에 따라 창작을 전개해왔다. 1953년 7월에는 당이 소집한 ‘아동문학 작가협의회’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중에 창작된 아동문학 작품들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당의 요구에 충실히 호응하지 못한 작품들이 이에 해당되며 여기에 대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 교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창작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및 설교식 창작 방법 등을 퇴치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듬해 1954년 『아동문학』의 월간 체제는 이에 대한 강구책 중 하나로 보인다. 송창일은 1954년부

18 『『아동문학』100호를 내면서』, 『아동문학』, 1961.3, 27면.

19 박세영, 위의 글, 71~72면.

터 약 2년간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해방 이전에는 작가로서의 활동에 집중한 반면, 해방 후에는 편집인으로서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송창일은 조선작가동맹에서 주관하는 문학 씨클 조직을 지도하고²⁰, 독자회에 참여하여 독자들과 소통하며,²¹ 독자들의 투고 작품에 단평을 연재하는 등 창작방법에 대한 이론을 주기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소년소설을 쓰려면 어떤 공부が必要입니까?」(『아동문학』, 1954.7)라는 독자의 질문에 “소년소설이란 아동 생활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그려져야”하며 작품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단히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작품을 쓰려는 동무들에게」(『아동문학』, 1957.9)에서는 구호보다 감정에 치중할 것을 언급한다.

글이란 자기를 위해 쓴다기보다는 남을 위해 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작품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케 하며 거기에서 어떤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이 건실하며 형식에 문학적 기교가 있어야 할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끝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작품을 쓰려는 동무들은 조국과 인민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의 글은 맥빠진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 읽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교양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²²

이밖에도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와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아동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아동 문예의 밤’ 행사에도 참가해²³ 독자들의 씨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씨클

20 고창규, 「우리 학교 문학 씨클은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아동문학』, 1954.4, 51면.

21 전창식, 「『아동문학』독자회에서」, 『아동문학』, 1954.1·2, 70면.

22 송창일, 「작품을 쓰려는 동무들에게」, 『아동문학』, 1957.9, 76면.

23 「각지에서 열린 ‘아동문예의 밤’」, 『아동문학』, 1957.12, 76면.

행사는 당시 당의 문예대중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1946년 5월 24일의 ‘각 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가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아직 문화예술인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대중을 찾아가고 대중이 알아들을 말을” 해야 하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하며 해결하며 대중과 같은 의복을 입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배워주어야 한다”는 문예대중화의 큰 틀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그가 내놓은 것은 선전전이였다. 그는 각 농촌, 직장에 선전망을 만들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순회극단, 순회강연단, 독보회 등의 선전 대 조직을 지시한다.²⁴ 이후 1953년 11월 27일 작가동맹 제5차 상무위원회는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사업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 결정한 과업들을 내세웠는데 이 중에도 이러한 방침이 거듭 장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아동문학 작품에서 발견되는 자연주의적 형식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비판의 정신을 높이고, 테마 합평회, 플롯 합평회, 창작 합평회 등을 수시로 조직한다.

둘째, 아동문학 신인육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청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아동문학 씨클원과의 담화를 수시로 조직하며, 『아동문학』에 발표되는 신인들의 작품을 친절하게 평가해주는 한편, 각 학교들과 민청단체들을 통하여 올라오는 아동들의 작품을 지도 발표한다.

셋째, 작가들의 현지 파견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시로 독자회를 조직하여 작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²⁵

²⁴ 박민규, 위의 글, 348면.

²⁵ 원종찬, 위의 책, 191~192면, 재인용.

아동문학 관계자회의,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5차 상무위원회 등 일련의 회의들에서 아동문학을 정책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제1차 작가대회 이후 아동문학 분과는 전문위원들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54년부터 기관지 『아동문학』이 본격적인 편집위원 체제를 갖추고 월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서 전개되었다.

3. 북한에서의 작품 양상

1) 평화적 건설 시기(1945~1950)

해방 후 송창일이 발표한 작품들은 크게 평화적 건설 시기(1945-1950년)와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1953-1967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송창일은 해방 후 동화 15편, 소년소설 8편, 동요·동시 6편, 평론 2편 등 약 3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조국해방전쟁 시기(1950-1953년)에는 발표된 작품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시기는 건너뛰었음을 밝혀둔다. 송창일의 주요 발표지면은 『어린동무』, 『우리동무』, 『아동문학』 등의 잡지와 국어교과서 등이다. 이 장에서는 국가시책에 의한 시기별 변화에 따라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해방 후 송창일의 첫 작품은 1946년 11월 『어린동무』에 실린 동화 「뽕박질」이란 작품이다. 「뽕박질」은 2005년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선집으로 발행한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에 재수록 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나라 없는 선수가 남의 이름으로 뛰는 설움”을 극복하고 조선을 세계에 빛낸 손기정 선수를 꿈꾸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 ‘준이’는 아버지

계 손기정 선수의 일화를 듣고 뽀박질에 더욱 취미를 붙여 손기정 선수처럼 “조선을 세계에 빛내보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때문에 조선을 세계에 알릴 수 없었던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낀 준이가 “조선의 어린 용사”가 되어 가기 위한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던 역사적 수난을 극복하고자하는 영웅주의가 짙게 깔린 작품이다. 준이의 결심은 작가의 서술에 의해 전달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북문예총의 ‘일제적, 봉건적, 민족반역적, 파쇼적,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예술의 세력과 그 관념의 소탕’이라는 강령과도 맞물린다. 당시 송창일이 북문예총 전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뽀박질」이라는 작품을 통해 당의 정책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북한 아동문학에서 본격적인 아동문학 평론이 발표된 것은 1947년 7월 발행된 『아동문학』창간호에서다. 창간호에 실린 평론은 총 다섯 편인데 리동규, 「해방조선과 아동문학의 임무」, 박세영, 「건설기의 아동문학—동요동시를 중심으로 하여」, 김우철, 「아동문학의 신방향」, 송창일, 「북조선의 아동문학」, 김인숙, 「아동문학운동의 새로운 방향」, 뜨쑤가로꼬바, 「소련의 아동문학」이 그러하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문 이론의 성격이 강한 평론들로 북한의 아동문학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송창일이 발표한 「북조선의 아동문학」은 해방 후 북한 전역에서 일어난 아동문학운동의 전개와 성과를 개괄한 글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역별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주-이원우, 김우철 합작으로 동화집 『붉은집』이 발행. 잡지로는 『아동학예』가 창간. 2호부터는 『어린이조선』이라 개제. 신의주 인민평론사에서 월간 『새어린이』가 발행.

원산-노양근, 최석승의 활약으로 월간 『별빛』이 간행. 이 중 노양근의 농촌동화

「꿈파는 집」은 해방 후 첫 시험인만큼 많은 기대. 원산 문학동맹지 『아동문학집』에 대한 기대.

나남-어린이 문학잡지 『달나라』가 나왔으며 『동화운동』이라는 이론을 겸한 월간이 발행. 김요섭, 이호남, 임춘길, 김복원 등에 대한 경의를 표함.

함흥-동요집 『어깨동무』가 발행.

평양-해방 후 아동문화사가 탄생하여 월간 『어린동무』와 주간 『어린이신문』을 발행. 최근에는 북조선 교육국 발행으로 이관되어 북조선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출판을 계획하고 있음. 월간 『어린동무』가 2권 14호, 『어린이신문』이 17호, 동화집 『참새학교』, 『꼬마다람쥐』(송창일 작), 신작²⁶

송창일은 해방 후 아동문학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이유를 “사회가 아동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된 점과 소련을 시찰한 문인들의 시찰담이나 그밖에 외국문 작품이나 영화를 통하여 아동심리와 아동활동을 주제로 한 것이 많이 유입된 영향”²⁷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북조선의 아동문학이 추후 더욱 약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과거의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난 것, 둘째, 사회적·국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개성(個性)문사들이 아동문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꼽았다. 송창일의 이 평론은 해방 후 북한 아동문학운동과 문단 상황을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는 아동문학의 중대성과 문인들의 책임을 강구하며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6 송창일, 「북조선의 아동문학」, 『아동문학』, 1947.7, 21~25면.

평양에서 발행한 송창일의 『꼬마다람쥐』는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 송창일 작품(집)이 북한에서 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참새학교』는 1938년 발행한 작품집의 재출간으로 추정되나 이 역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써는 잠정적인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27 송창일, 위의 글, 20면.

아동에게 주는 문학의 내용이 순진무구한 동심을 건전히 발육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모름지기 문인들은 아동을 바로 연구하는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며 자기네의 작품에도 아동심리를 취재로 한 것을 많이 쓰며 직접 아동에게 주는 작품도 정성껏 공급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제 해방 후 북조선의 아동문학을 회고하여 볼 때 양으로는 단시일에 비추어 비교적 발전의 형태이나 질적으로 보아 낙관할 정도는 못 되는 것이다. 작품을 쓰기 위한 작품이라든가 아동을 웃기기 위한 즉 아동을 성인의 유희대상으로 세워진 작품을 도리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²⁸

1946년 실시된 토지개혁과 노동법령, 산업국유화 법령 등은 당시 농촌 인민들의 생활을 개변시켰는데 이러한 국가정책들은 1946년 평화적 건설 시기 아동문학의 주요 테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송창일 역시 이를 반영하여 작품을 창작했다. 당시의 국가정책을 선전하는 작품들로는 「새교실」(『우리동무』, 1949.4), 「어디나 5.1절」(『어린동무』, 1949.5), 「새마을」(『어린동무』, 1950.3) 등이 있다.

「새교실」은 학교 없던 마을에 새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짝막한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아유- 참 좋네』

『깨끗도 하네』

『오늘부터 이게 우리 교실이라지?』

『세상도 새것 모두 모두 새것-』

『인제는 학교가 가까와 좋게 됐지?』

28 송창일, 위의 글, 25면.

『난 고개 넘기가 힘들었다』

『난 여름에 개울 건느기가 싫었어』

(……)

이학년 애들이 새로 지은 교실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없던 생골에 새학교가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누나들의 손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다리 아프던 재님의 학교는 안가도 되고 인제는 가까운 학교가 생겼습니다.

(……)

새로 지은 학교 새로 꾸며진 새교실, 새로 만든 새 책상 걸상 칠판이 모두 정다 왔습니다.²⁹

송창일은 해방 이전에도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여럿 창작한 바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동문학에서 주요 무대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1930년대 후반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점차 공고화되면서 학교는 아동문학의 새로운 주요 무대로 등장했고, ‘학교소설’이라는 장르명이 달린 작품들이 잡지에 수록되기 시작했다. 작가인 동시에 교사였던 송창일은 학교라는 공간에 누구보다 밀착해 있었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생활소재를 포착한 작품들을 창작했다.³⁰ 해방 이전 학교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상투성에서 벗어난 교사 이미지를 제시해 개성과 일상을 강조하는 작품양상을 보였다면, 해방 후에 발표한 작품에서는 국가사업에 호응하여 아동들의 학습 재고를 고취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상이한 부분이다.

²⁹ 송창일, 「새교실」, 『우리동무』, 1949.4, 5~6면.

³⁰ 김젼마, 위의 글, 46면.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공화국이 선포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평화적 건설은 눈부신 면모로 진행되었으며, 공장, 광산, 농촌들에서는 초과생산을 위한 증산투쟁이 전개되었다. 인민경제의 부흥 발전에 따라 인민생활은 점차 안정되고 미래의 주인공들인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에게 배움의 길은 더욱 활짝 열리었다. 이 시기에 벌써 초등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세 아래서 아동문학 작가들은 아동들의 기본 임무는 학습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차 민주조선 새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발전시키는 기동이 되도록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 부지런할 것을 교양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³¹

토지개혁을 소재로 한 「새마을」은 토지개혁이 제정된 3월 5일 명절을 경축하며 새롭게 바뀐 새마을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서사적 개연성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는 듯한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작품이다.

『그날이야 잘 놀아야지 땅 없던 농민들이 땅을 얻는 날이 아니냐? 현물세와 애국미를 남 먼저버친 우리 새마을 농민들의 기쁨은 비길데가 없다』

(……)

작년까지도 고개 넘어 먼 곳 학교엘 다녔는데 지금은 학교가 썼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안해도 그만입니다. 새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팔고 힘을 모두어 지난 여름에 2층 집 새 학교를 보기 좋게 세워 놓았습니다. 의무 교육 준비를 남에게 떨어지지 않고 빨리 하기 위해서 나선 농민들은 학교 지슨(‘짓는’의 오식으로 보임-인용자) 일에 온 힘을 다 했습니다.

(……)

31 김명수, 위의 글, 372~373면.

분단들이 서로 경쟁을 걸고 호소문을 받들어 싸워 나아가는 모습은 참말 힘찬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남반부 동무들은 하루속히 북반부의 행복한 동무들과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새마을 학교 소년단원들은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반부에서 목숨을 바쳐 나쁜놈들과 싸우는 빨찌산 아저씨들과 빨찌산 어린동무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또 그들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³²

1947년 초에 이르러 북한 문학은 이른바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창작 방법론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는 긍정적 주인공론에 기초한 혁명적 낭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이후 북한 문학을 규정하는 중요한 틀이 되었다.³³ 「새마을」 역시 제도 개혁에 발맞춰 의식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작가는 토지개혁이 농촌 아동들에게 일으킨 변화와 더불어 혁명적 사회건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을 소재로 하여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작품도 있다. 「못자국」(『아동문학』, 1950.6)은 빨치산에 들어간 아버지의 소재를 자백하지 않아 ‘왜놈 선생’에게 손이 못이 박힌 아이가 등장한다. 망경대 유가족 학원에 다니는 주인공 ‘송묵’은 “원췌의 총칼에 부모를 여이었지만 혁명의 굳센 뜻을 뒤이어 싸워 나가는 이 학생들의 씩씩한 모습들”과 달리 혼자 근심에 빠져있다. 이를 걱정한 반장이 자초지종을 묻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행방을 끝까지 말하지 않자 ‘왜놈 선생’이 손에 못을 박아 흠집이 생겨 일을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는다. 반장 역시 혁명 투사의 자녀로 송묵을 격려하며 김일성 공적을 예찬하며 항일혁명문학의 전통을 강조한다.

³² 송창일, 「새마을」, 『어린동무』, 1950.3, 12~13면.

³³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95면.

한 손에 망원경을 들고 걸웃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멀리 바라보고 섰는 절세의 애국자 영웅의 동상을 우러러 보는 송목동무의 기쁨은 한없는 기쁨에 넘칩니다.

『나도 이 영웅의 뒤를 따르겠다』

송목동무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³⁴

이 작품은 아동들에게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전면에서 드러나 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혁명투쟁을 했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해 투쟁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다. 이는 당시 북한 전반의 이데올로기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일제 말 친일 행적이 있는 송창일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한 것은 다소 아이러니 하다고 볼 수 있다. 친일문학을 거쳐 항일혁명문학에 이르기까지 송창일은 자가당착에 가까운 모순을 드러냈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 아동문단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1953~1967)

송창일은 해방 후 1954-1959년까지 가장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다가 1959년 이후 행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는 1954-1956년까지 『아동문학』 편집위원을 맡으며 조선작가동맹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집약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작품은 주로 『아동문학』에 발표했다. 그는 창작물뿐 아니라 독자 작품의 단평, 지도이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아동문학은 당이 소집한 아동문학 관계자회의와 제1,2차 작가대회를 계기로 한층 공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³⁵

34 송창일, 「못자국」, 『아동문학』, 1950.6, 75면.

35 원종찬, 위의 책, 186면.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 속에서도 아동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더욱 큰 배려를 돌리며 아동들의 학습 생활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 주었 을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발전을 위하여 온갖 대책을 취하였다. 1953년 7월 당이 직접 소집한 아동문학 작가협의회는 그 한 실례로 된다.

이 회의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중에 창작된 우리의 일부 아동문학의 엄중한 결함 들이 날카롭게 지적되었으며 아동문학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지어주었다. 회의에 서는 우리 작가들이 아동교양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의 요구에 만족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작가 들이 아동들의 세계를 파악치 못하고 성년들의 세계관을 주관적으로 설교하는 경 향, 유치하거나 기묘한 말들로써 무사상적인 내용을 역어놓는 형식주의적 경향 및 작품의 사상 및 감정이 명료하지 않고 모호하며 아동들을 어떤 의심과 혼란 속 에 빠뜨릴 수 있는 경향, 그리고 우리의 고전과 인민 창작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 에 있어서의 불원만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문학 작가들과 아동교육 관계자들은 아동교양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며 아 동문학에 대한 과소평가의 경향을 일소하며 창작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및 설교식 창작 방법 등을 결정적으로 퇴치함과 아울러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 제기되었다.³⁶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조국해방 전쟁시기의 결함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 고자 작가들의 다양한 임무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1950년대 들어서는 ‘유희동요, 서사시, 동화시, 우화, 만화영화 씨나리오, 오체르크, 이야기’ 등 다양한 하위 장르가 나타나고 있다. 허구성이 약한 ‘오체르크’와 ‘이야기’

36 김명수, 위의 글, 362~363면.

는 곧 사라지지만, 다른 것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생산해 왔다. 특히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핵심으로 하는 ‘우화’는 아동문학 개론서에 기본 장르로 편입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북한의 아동문학 장르는 아동의 연령별 특성에 기초해서 남한보다 한층 고르고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이는 교양의 침투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라고 여겨진다.³⁷ 송창일은 1950년 몇 편의 우화를 발표했는데 「벼랑에 떨어진 여우」(『아동문학』, 1954.1·2), 「향나무」(『아동문학』, 1954.12), 「옥수수 이야기」(『아동문학』, 1956.5), 「동무를 떠난 밀알」(『아동문학』, 1958.10) 등이 그러하다.

「벼랑에 떨어진 여우」는 간사한 인간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 꾀를 부리는 여우가 등장한다. 여우는 범의 가죽을 훔쳐 범의 행세를 하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기 시작한다. 자신이 “산중의 왕”이라 생각하며 한껏 권력에 취해있던 여우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꿈을 이용하려다 오히려 꿈에게 정체가 탈로나 벼랑에 빠지게 된다. 권력에 기대어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적 인간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동물을 통해 인간세계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관료주의의 폐해를 우회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도덕적 교양을 고무시키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 드러난다. 우화는 아동에게 교양을 함양시키기에 적절한 장르로 북한에서 특별히 취급되었다.

1953년 7월 23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를 선언했다. 전후 복구 사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에서는 전쟁시기와 다름없는 총동원체제가 지속되었다. 또한 남한과 적대적으로 대치

37 원종찬, 위의 책, 380면.

하면서 체제경쟁을 벌이는 형편이었기에, 내부를 공고화하는 작업에서는 조금의 틈도 허용치 않았다. 당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에서 문학예술은 인민을 교양하는 유력한 사상의 무기였다. 따라서 문학예술에 있어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³⁸ 이듬해 발표된 「향나무」는 수십 년 살아온 산을 떠나 도시로 가서 복구건설의 도움이 되고 싶은 향나무를 의인화 한 작품이다. 계획경제를 추진해가던 1950년대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창작된 이 작품은 아동들의 노력 교양을 제고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며 전후 복구와 사회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향나무의 눈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둥그렇고 판판한 로타리”, “넓고 긴 아스팔트, 길 우를 분주히 달리는 자동차들” 등 낯설고 신기한 것들뿐이다. 향나무는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해 하지만 이내 수양버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역할을 긍정하고 복구건설을 위해 힘쓸 것을 결심한다.

“이 새 도시를 세우는데 나무도 여러모로 쓸데가 있는게란다. 통나무들은 굵기 때문에 재북이 되는 계구, 너는 사시장철 푸른 가지들이 자람이 된단다. 그러니까 너는 건설되는 새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하는 나무며, 복구 건설에 힘 쓰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소중한 나무(...)³⁹”

「옥수수 이야기」는 보리, 벼, 조, 수수, 옥수수 등을 의인화해 곡식들이 각각 우열을 가리기 위해 언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가장 먼저 싹을 내고 자라는 곡식이 우세하며 가장 늦게 열매를 맺는 옥수수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곡식들은 모두 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짐작은 옥수수”, “까불기 잘하는 조”, “능구렁이 수수”등 곡식들을 통해 다양한 인간

38 원종찬, 위의 책, 183면.

39 송창일, 「향나무」, 『아동문학』, 1954.12, 25면.

상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이 곡식들을 수확한 농부 부자(父子)는 옥수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농사를 20년이나 하면서도 옥수수가 그런 건지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 옥수수란 건 텃밭에나 심어 풋강냉이로나 먹는 줄 알았었지 누가 그렇게 좋은 건줄 알았니? 그것이 다수확 알곡인줄이야.”

(……)

“저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옥수수에서 안 나오는 물건이 없어요. 약풀이니, 인조 고무니, 종이니, 별별 공업품이 38종이나 난대요.”⁴⁰

이 이야기를 들은 곡식들은 서로 우열을 가리지 말고 “잘 자라, 열매를 많이 맺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자.”라고 다짐한다. 모든 생명은 쓸모가 있으며 각각의 효용을 강조하는 교훈주의가 깔려 있는 동시에, 변화 발전한 농촌과 생산력의 증진 등을 통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실제로 이 작품을 읽은 독자가 “옥수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곡물인가를 잘 알았으며, 이 작품을 읽고 우리들은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일을 더 잘 돕겠다는 의욕이 생겼다.”⁴¹고 언급한 바 있다. 의인화 수법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아동들에게 선전 효과를 불러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송창일은 해방 이전 교훈적 의인동화를 여러 편 창작한 바 있는데 주로 동물이나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인간세계 혹은 인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었다. 해방 후 발표한 우화 역시 등장인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풍자하며 교훈적인 경향을 띠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북한의 사회체

40 송창일, 「옥수수 이야기」, 『아동문학』, 1956.5, 18~19면.

41 「속후 아영소 『아동문학』 독자 모임」, 『아동문학』, 1956.10, 33면.

제를 선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한층 짙게 드러남을 엿볼 수 있다. 보다 정치적 의도가 강하고 주제의식이 우선시된 작품이 대부분이다.

한편 조쏘친선, 인민군대, 인민항쟁, 소년단 등 당시에 요구되었던 정치적 테마를 그린 작품들도 있다. 「비둘기」(『아동문학』, 1954.10)는 인민군의 은혜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원쑤’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윤호’가 자신을 구해준 ‘왕웅’아저씨에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비둘기를 선물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침략의 무리 미제를 무찌르는 정의의 싸움에서 당신들과 같이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굳게 뭉치어 어떤 원쑤라도 용서없이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지원군 대표는 명랑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찬 답사는 몇 번이고 터져나오는 군중의 우레 같은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선물과 꽃다발을 지원군들에게 드렸습니다. 고향에 가드라도 서로 잊지 말자는 약속은 누구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⁴²

이 작품은 인민군에 대한 아동들의 친근한 감정을 고무시키기 위해 미제 침략자와 인민군대가 권선징악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작품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조국해방 전쟁 이후 적에 대한 증오심, 승리에 대한 신념, 애국심 등의 고취는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만큼 작가의 강한 목적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아래김명수의 평론은 이런 목적의식을 부추기는 당시의 문단상황을 잘 보여준다.

42 송창일, 「비둘기」, 『아동문학』, 1954.10, 6~7면.

원썬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은 공화국 어린이들의 애국심의 한 표현이며 우리나라를 원썬들의 어떤 침해나 파괴 행위로부터도 수호하려는 불타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화국 소년들에게 있어서 조국 보위의 인민 무력인 인민군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감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감정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러한 감정을 더욱 고무해 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주의 사상을 더 한층 높여주는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⁴³

「기록장」(『아동문학』, 1955.2)은 음악씨클에서 일어나는 여학생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시 경연 음악대회를 앞두고 메인 소프라노 ‘애순’이 갑자기 연습에 나타나지 않자 음악씨클 반장인 ‘정자’는 걱정을 한다. ‘순옥’에게 애순이가 음악씨클이 싫어져 연습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자는 자세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애순의 집에 갔다가 애순의 기록장을 보게 된다. 기록장에는 순옥에게 미움을 받아 주눅이 들어 씨클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자는 “대담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비판할 줄 모르는 애순”을 위해 생각을 고쳐주기로 결심한다. 애순이가 기록장에 적어놓은 새해 첫날의 결심처럼 “반성과 결의”를 일깨워주기 위해 정자는 순옥과 애순을 다 불러놓고 기록장을 보여준다.

새해!

마음도 새로운 한 해의 첫 아침!

나는 맹세한다.

학습과 대 사업에서

그리고 음악 씨클에

43 김명수, 위의 책, 374면.

보다 더 열성을 내어
 공화국의 참다운 딸이 되리라
 수령님 앞에 맹세 드린다.⁴⁴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아동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이 작품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신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인식의 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의 영예가 달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나타나지 않는 애순의 무책임함과 자기 욕심에 동료들 이간질한 순옥, 그리고 대 사업을 위해서는 대담하고 솔직하며 비판할 줄 아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자까지 작가는 결국 사회주의제도에 입각한 인물상을 제시하기 위해 각 인물들의 갈등요소를 작품의 주요 서사로 배치한 듯하다. 결국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아동문학에서 요구되는 의식의 성장과정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공화국의 참다운 딸”이 되고 싶은 주인공들은 고유의 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작가의 의도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가깝게 느껴진다. 이처럼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앞 시기의 연장선에 있으며 조국과 수령, 새 제도와 민주개혁에 대한 인식을 개조하기 위해 지어진 작품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그동안 송창일은 1930년대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벌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해방 후의 행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잊

44 송창일, 「기록장」, 『아동문학』, 1955.2, 9면.

허진 작가가 될 뻔했는데, 최근 그의 작품이 하나 둘씩 재출간되면서 다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재북 작가인 탓에 연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활동 전반을 다시 살피는 것은 나름대로 한국아동문학사의 빈자리를 메우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송창일 연구는 민족 분단에 따른 아동문학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일제 강점기 계급주의가 만연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송창일은 당대의 시대조류와는 조금 비껴난 자리에서 지방문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 말에는 친일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후 그의 위치는 이전보다 한층 격상된다. 사상투쟁의 전면전에서 살아남은 그는 각종 단체와 문단에서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며 해방 이전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간다. 해방 전 문단의 주변부에 위치하던 그는 해방 후 문단의 중심부로 진입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1960년대부터는 행방이 묘연해지며 문학사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평화적 건설시기와 전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주로 작품 창작을 했다. 조국해방 전쟁시기(1950-1953)에 작품활동이 거의 없었던 그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들어서서 선전 활동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친다. 대부분 국가 정책에 호응하는 주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많아 작품성으로 그를 자리매김하기엔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불운한 시대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탓에 문학사에서는 낮은 작가로 인식되지만 송창일은 일제시대부터 분단시대 아동문학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작가이기도 하다. 해방 후 북한 아동문학의 인적청산과 사상 검증이 이념적으로 취약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아동문학 부문이 독자적인 진용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해방이라는 분기점을 통과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뿐더러 이를 역사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시

각이 필요하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아동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더불어 분단을 통과하며 사라진 작가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송창일이라는 문제적 작가를 재조명하고 그를 문학사적 시야 속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작품들도 많아 그의 문학세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발굴되는 자료들을 통해 더욱 확대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아동문학』 『어린동무』 『우리동무』

2. 논문

김젼마, 「송창일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17.

박민규, 「해방기 북한의 문예대중화 운동과 시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343~378면.

원종찬, 「강소천 소고 : 해방기 북한체제에서 발표된 동화와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 7~36면.

3. 단행본

김명수, 「해방 후 아동문학의 발전」,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장수철, 『격변기의 문화수첩』, 현대문화, 1991.

장형준, 「해방 후 아동문학의 찬연한 발전 노정」, 『해방 후 우리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Abstract

A Study on Song Chang-il, a Writer in North Korea

— with a Focus on His Post-Liberation Activities in North Korea

Kim Jemma

Song Chang-il was a children's literature author who was active for 30 years from 1929 through 1959, publishing about 130 works including children's songs, stories for children, teen-age stories, and critical essays. His works demonstrated some literary achievements across the Korean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having been included in various selections or collections of children's literature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o this day. Meanwhile, he also betrayed discontinuity in a contradictory fashion with his pro-Japanese literature towards the last day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his revolutionary literature that favors the North Korean regime. In many respects, Song Chang-il is an author who reveals both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children's literature.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Song expanded the scope of the literary circle by serving as a member of the Children's Literature Committee, a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Between 1954 and 1956, he also led the literary community by serving as a member of the editing committee for Children's Literature, the magazine for the Korean Writers' Union. His post-

liberation creative work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peaceful construction’ (1945-1950) and ‘the period of postwar socialist construction’ (1953-1967). In the period of peaceful construction, his major works treated the change of people’s lives in the wake of the land reform and the revamping of the legal system, whereas in the period of postwar socialist construction, his principal works praised the fatherland and the leader or tried to transform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w system and the democratic reform

■ Keywords: Song Chang-il, writer in North Korea,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peaceful construction, the period of postwar socialist construction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